

# 중국·동남아시아에 있어서의 포장 및 잉크 현황

奥村伸捷 / 東洋잉크製造株式會社 그라비아사업부 사업기획부 部長

## 1. 머리말

중국·동남아시아에 있어서의 포장사정을 말하기에는 그 국가들의 생활수준·생활환경이 크게 관계되고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각국 경제는 대폭적인 신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로 최근 1~2년 전부터 감속상태의 조짐이 보이고 1997년 여름부터 동남아시아를 덮친 통화하락에 의한 경제상태의 불안정도 포장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지금의 시점에서 장래의 포장관계 신장을 예측하는 것은 곤란하지만食에 관한 포장재는 그 보존성 및 기능성에서 생활에 뿌리내리고 있고 이미 필요불가결한 것이 되고 있다. 금

회 여기에 서술하는 포장사정은 중국·동남아시아가 통화하락으로 대단한 격동기 중에 있고 그것도 주간단위로 변화하고 있어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때문에 96년 여름 이전 상황이 비교적 안정돼 있었던 시기에서의 포장사정의 기술이 되는 것을 용서바란다.

## 2 중국·동남아시아의 인쇄관계 사정

인쇄관계의 생산량은 각국의 인구, 경제상황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표 1)).

[표 1]에서 GDP에서는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의 순으로 되고 그 나라의 생활환경이 풍부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1인당 책·서적류, 포장, 식품포장 등의 인쇄물의 소비량에 관계가 있다.

소비되는 품질은 생활수준이 높은 나라는 높은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한편 소비수량에서는 인구와 생활의 풍부함에 律則된다. 중국, 인도네시아는 인구에서 오는 기대도가 있다. 싱가폴은 서적, 오프輪인쇄의 신문 관계 등에서의 생산은 있지만 한편 식료품은 수입이 많고 식품포장재의 컨버터는 적다.

단지 종이팩 액체용기 관계는 「테트라팩」이 진출해 있고 팩커에서의 포장재 공급과 컵 관계

[표 1] 인쇄관계의 각국 생산량

구분	인구	국민인당 GDP	경제성장률(%)	
			94년	95년
싱가폴	293	24,183	10.1	9.0
대만	2,150	12,070	6.5	6.7
말레이시아	2,010	3,594	8.5	8.5
태국	5,871	2,436	8.5	8.6
필리핀	6,860	934	4.3	5.0
인도네시아	19,220	928	7.4	7.1
중국	116,220	481	11.8	9.8
일본	12,503	36,740	0.5	2.2

**(표 2) 각국의 잉크수요량**

(98년 3월 현재)

구분	그라비아잉크	잉크잉크(※ <sub>1</sub> )	G/인(※ <sub>2</sub> )
싱가폴	1,200	1,600	0.4096
말레이시아	3,700	1,600	0.0184
태국(※ <sub>3</sub> )	9,600	2,900	0.0169
필리핀	4,500	700	0.0080
인도네시아	1,600	700	0.0008
중국(※ <sub>4</sub> )	14,000	35,000	0.0012

※<sub>1</sub>: 신문잉크는 포함 안됨

※<sub>2</sub>: 그라비아잉크/입구

※<sub>3</sub>: 태국은 공업통계가 없기 때문에 당사 현지회사의 추정

※<sub>4</sub>: 1995년

**(표 3) 식생활수준**

구분	식품포장재	특성
1	인스턴트(라면)스낵	싸고 편리한 식품
2	냉동식품·보일관계	냉장고의 활용
3	레토르트	값비싼 포장재 고도의 컴버팅

에서 「폴라컵」의 인쇄가 있다.

[표 2]는 그라비아잉크의 각국 1인당 수요량(연간)이지만 수출량을 빼보지 않으면 안되지만 경향이므로 GDP의 순서와 같고 포장재가 어떻게 생활수준에 비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연포장재는 [표 3]과 같이 식생활수준에 의해 그 단계가 있다.

싱가폴, 홍콩, 대만, 태국은 이미 3의 단계까지 식생활환경에 도달하고 있다.

냉동식품·보일식품은 이미 유통되고 있다.

단지 싱가포르, 홍콩은 포장재의 수입물이 많다. 태국은 냉동식품관계의 일본계 회사의 진출이 있고 생산을 개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1과 2의 중간이고 대부분이 스낵류, 위생적 관계이다.

필리핀도 1,2의 중간이고 일반 시민생활이 2의 수준에 도달해 있지 않고 인스턴트커피 등의

乾物포장재가 일반적이다.

인도네시아·중국은 냉장고의 활용이 특수계급, 특수도시 이외의 일반생활의 장소까지 보급돼 있지 않고 냉동·보일포장재는 일반적이지 않고 스낵, 담배 포장과 乾物포장재가 주류가 된다. 또 동남아시아는 화교가 경제세력을 쥐고 있고 식문화에서도 중국요리가 크게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식문화는 항상 따뜻하게 먹는 것이 습관이어서 인스턴트식품으로의 저항감이 있는지도 모른다.

### 3. 인쇄원판지·필름사정

다음으로 각국에 있어서의 인쇄사정으로서는 인쇄에 사용되는 피인쇄체의 공급사정이 있다.

종이는 각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는 일본, 대만, 캐나다, 유럽에서의 수입에 의지하고 있다.

인쇄대상원판에서 OPP필름도 각국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품질문제를 안고 있고 고품질이 요구되는 포장재에는 일본, 한국 등에서의 수입품으로 대응하고 있다.

**(표 4) 각국의 종이·필름의 생산**

구분	종이	OPP	PET	Ny	AL
싱가폴	X	X	X	X	X
대만	O	O	O	X	X
말레이시아	O	O	X	X	X
태국	O	O	O	X	O
필리핀	X	O※	X	X	X
인도네시아	O	O	O	O	X
중국(※ <sub>2</sub> )	O	O	O	X	X
일본	O	O	O	O	O

O : 생산하고 있다.

X : 생산하고 있지 않다.

O※ : 기업내생제화

고성능품질이 요구되는 포장재로 사용되는 PET필름은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제가 있고 자국내 소비와 수출이 있다. 가격과 품질에 의해 컨버터는 적절히 분별을 하고 있고 품질에서는 일본품, 가격에서는 인도네시아, 한국제가 사용되고 있다.

한편 특수사정으로서 ASEAN지구에서는 대규모 컨버터는 자사의 품질을 지키기 위해 「필름인쇄 - 후가공 - 슬리터 - 제대」를 자사내에서 원료부터 제품까지 생산가공을 하고 있는 회사가 하청 사정의 불안정한 「필리핀」 등에 보이고 있다. 채산성·가격으로서 경쟁능력은 떨어져도 제품에서 부가가치를 얻고 있는 전형적인 컨버터이다.

또 싱가포르의 자국내에 장치산업이 되는 종이, 필름생산은 없고 국외에서 수입해 가공하고 자국내 소비·수출과 수입관세가 0인 것을 잘 활용하고 있다.

#### 4. 포장재에 사용되는 잉크현황

중국·동남아시아의 인쇄에 있어서 옵셋·그라비아잉크는 가격이 싼 현지 회사제가 있지만 품질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일본계 인쇄회사의 진출목적은 품질이 좋은 인쇄물의 제공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품질이 안정된 일본계 잉크회사를 사용한다. 현재 생산할지 수입할지는 손에 넣는 가격과 품질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현지에서의 완성잉크, 생산원료의 품질과 수입관세와의 관계가 있다. 수입관세는 그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본적으로 그라비아잉크의 경우 위험물의 수

송에 의하고 수송대금의 고가 때문에 현지 생산이 환영받고 있다. 싱가포르의 잉크, 원료에 관해서도 관세는 없고 프리포트로서의 기능을 활용해 번영하고 있다.

한편 잉크의 생산거점으로서의 국토면적이 적고 토지가격, 노동력도 높기 때문에 잉크생산을 하는 것보다도 관세가 없는 것 때문에 싼 잉크를 수입하는 쪽이 득이 되고 필요최소한의 생산에 그치고 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원료의 수입관세가 제품수입보다 싸기 때문에 양이 된다면 현지 생산이 유리하게 된다. 태국은 잉크수입 관세가 5%로 싸지만 화학제품 중에서 잉크가 특별세율이 낮아, 잉크원료는 완성잉크보다도 비싼 세율이지만 수입경비, 납기문제 등에서 현지에서 생산하는 쪽이 약간 유리하다.

중국의 경우는 잉크수입관세가 높기 때문에 양이 되면 인건비가 싸서 가격경쟁력으로 현지 생산이 유리하다. 그러나 현지 생산원료는 품질이 불안정한 것이 많다. 한편 국내의 로지스틱관계가 정비되고 있지 않은 원료의 수입, 제품의 납입에도 충분한 시간설정이 필요하다.

#### 5. 중국·동남아시아 지구의 인쇄상황

인쇄방식에서 동남아시아는 식품포장에서는 일본과 같은 경향으로 플렉소인쇄보다도 그라비아인쇄가 단연 많다. 잉크생산회사는 일본계 잉크회사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옵셋인쇄, 캔인쇄는 일본계가 우위라고는 할 수 없다. 인쇄회사는 구미계의 잉크회사와 일본계회사의 특징을 활용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또 중국은 다른 동남아시아와 다른 것은 1980

년대에 국가의 정책으로서 인쇄회사를 1省에 적어도 1사 설립하고 있다. 그 때 최신의 인쇄설비를 들였으며 구미인쇄기는 읍셋·캔관계가 많지만 그라비아관계는 일본의 인쇄기메이커가 대부분이었다.

## 6. 통화하락에 관해서

통화하락은 동남아시아의 각국을 덮쳐 수입되고 있는 고품질이 요구되는 인쇄필름, 잉크, 그

(표 5) 각국의 종이·필름의 생산

구분	96/12	97/4	97/5	97/12	98/3
싱가폴	100%	103%	105%	119%	115%
말레이시아	100%	98%	104%	153%	146%
태국	100%	101%	126%	184%	167%
필리핀	100%	100%	108%	152%	151%
인도네시아	100%	101%	110%	230%	374%

원료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표 5)).

통화하락의 영향을 받고 있는 순위는 인도네시아 > 태국 > 필리핀 ≥ 싱가포르

특히 영향이 있는 나라로서 인도네시아가 IMF, 정치환경에 의한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다. 현지 일본계 인쇄회사는 수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는 없지만 국내로의 판매는 큰 손실을 받고 있다. 역시 비교적 안정돼 있는 것은 대만, 중국이다.

## 7. 포장관계의 규제에 관해서

일본계 인쇄회사는 사용하고 있는 잉크를 일본계 잉크메이커의 것을 사용하는 커다란 이유는 일본잉크공업회의 자주규제인 NL규격에서의 품질규격품에 맞추고 있는 것으로 특히 중급

속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을 들 수 있다. 현지 잉크메이커도 동규제에 맞추고 있는 곳이 많다. 그러나 각국의 포장재 규제는 거의 없는 것이 실정이다. 중국에서는 북경에서 사용용제 「톨루엔」의 규제가 있다. 단지 타지구는 준법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은 동남아시아와 약간 규제에 관해서는 자세가 다른 구미의 규제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단지 그 철저를 기하는 省에 의해 규제의 강약이 있다. 또 법률은 있지만 그 준법은 省에 의해 각기 다르다.

## 8. 공업회 관계, ISO, 사회환경 등에 관해서

각국의 현지 포장연합회의 실정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읍셋관계의 인쇄공업회는 있지만 그라비아인쇄는 플라스틱가공연합회에 포함돼 있다. 태국·대만에 관해서는 같은 읍셋인쇄공동연합회는 있지만 그라비아관계는 없다.

필리핀은 연포장협회가 존재한다.

동남아시아, 중국은 동업기업의 橫의 결속은 일본과 비할 경우 상당히 약하고 정보교환은 아직 할 수 없는 것이 실정이다. 또 ISO 9002는 포장재를 수입하는 경우 필요하고 특히 품질문제를 안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에서 일본계·구미계 생산회사에서 취득하고 있는 회사가 많다.

그라비아잉크로 본 중국·동남아시아의 포장사정을 서술했지만 冒頭에 서술한 것같이 통화하락에 의한 경제위기가 각국을 덮고 있지만 현재 잠시 주춤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쨌든 경제상태에는 영향이 있어도 포장재는 확실히 증가경향에 있는 것은 확실하다. ☐